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보성녹차' 3년 연속 선정

차산업·차문화 선도 지역특산품 부문 차지



보성군의 녹차가 한국명가명품 연구소 선정 '2017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산품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오랜 기

간에 걸쳐 명가명품으로 명성을 쌓은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전략, 체계, 관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성과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군수품질인증제 실시와 8년 연속 유럽(EU), 미국(USDA),

일본(JAS) 국제 유기인증 획득 등 녹차의 품질고급화에 주력하여 보성녹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힐링과 웰빙 바람을 타고 식음료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차의 다양한 변신을 보여 주며, 특색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과 오감을 자극하는 블렌딩 티와 차 연관제품 개발 등을 통해 차산업과 차문화를 주도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들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가명품으로 선정됐다.

이용부 군수는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한 보성녹차가 변화된 차산업과 차문화를 통해 보성의 차향이 세계 속의 차향이 될 수 있도록 차를 통한 제품개발과 차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낭만이 있는 '힐링 보성! 살고 싶은 문화향터 보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근무혁신 본격 시행...일과 가정 양립 기대

유연근무제·가정친화제도 확대,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함평군이 근무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근무혁신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정친화적 제도 확대,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 월 1회 부서 단위로 사용하는 '집단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하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집단 유연근무제와 연계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자녀 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초과근무 감축을 위해 퇴근 후 출근 전까지 최소 9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

량을 설정해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를 없앨 방침이다.

긴급한 경우 외에는 주말과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별, 개인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주요진 총무과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근무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청소년 금연교육 통했다

청소년 흡연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보건소 금연교육 성과

장성군의 청소년 금연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은 지난달 1~13일 관내 중·고등학교 2,18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율이 5.8%(128명)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청소년 평균 흡연율인 6.3%(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중학생 858명 중 12명(1.4%)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으며 흡연자 중 여중생은 없었다. 고등학생은 1,325명 중 116명(8.7%)이 흡연한다고 답했다. 남학생이 100명(7.5%), 여학생이 16명(1.2%)이었다.

흡연 동기를 묻는 물음엔 흡연자 128명 중 절반인 64명이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14%), '친구들이 피우니까 따라서 피움'(13.2%), '친구들이 피우려고 권해서'(9.3%), 담배를 피우는 게 멋있게 보여서'(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흡연 학생 대부분은 금연을 원했다. 128명 중 100명(78.2%)이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다고 했다.

장성군은 관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장성군보건소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 서도 정기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초·중·고등학생 2,777명을 상대로 52회의 금연 교육을 실시했고 축령산 편백숲에서는 어린이·청소년 391명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금연심화 프로그램 흡연캠프(Can't) 교육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PC방 음식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흡연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은 흡연자 중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금연을 원하고 상당수 흡연자가 호기심이나 친구들 때문에 흡연을 시작한 건 흡연 학생들에



게 계속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금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오는 9월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4곳에서 금연을 소재로 한 뮤지컬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또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룹 집중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장성군 흡연율은 2015년 20.1%에서 17.2%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남(20.2%)은 물론 전국(20.9%)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장성군은 직장, 민간단체, 일반주민, 상무대 군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부응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 허가 1,174건...에너지 자립률 110%

고흥군은 새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취소,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탈원전시대 선언과 현재 4.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1MW이하 무제한 계통 접속 허용 등 규제완화 발표(16.7.5일)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올 상반기 허가 규모는 총 1,174건에 391MW 용량으로 100% 가동할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110% 이상(생산가능전력 514,283Kwh/2016년도 전력소비량 431,666Kwh)되어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동률은 허가량 대비 30%

~35% 수준이나, 한전의 송·배전 계통 접속망이 확보되면 향후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건립 증가에 따른 자연 훼손과 지역 경제 효과 미흡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 고흥군은 정부차원, 에너지세 신설, 에너지 총량제 도입, 소규모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지원 확대(현행 신재생에너지 시설 2,000kw 초과 → 개정) 500kw 초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저리용자지원, 전력 생산량 우선 구매 등 세수 확충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 허가

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고흥군은 기후 변화에 따른 CO2 줄이기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 공급과 에너지 100% 이상의 전력 자립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영광군, 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

영광군은 우기철 부실시공 방지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 재해예방사업장 6곳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한 김중성 군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상태를 점검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장은 사업비 3,768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지구(군남, 길용, 발막, 성산, 진내)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개 지구(궁적, 진내지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적인 수해피해지역 예방은 물론 영농편의 제공, 수질정화, 자연생태공간 확보 및 복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편의와 공공의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